

『토지』와 『혼불』의 비교연구

이 덕 화*

1. 『토지』 『혼불』의 비교를 위한 전제
2. 서사적 세계와 서정적 세계
3. 『토지』의 '생명사상'과 『혼불』에서의 '혼불'의식
4. 『토지』와 『혼불』의 인물 비교
5. 결론

초록

『토지』가 당대의 일상적 구체적 세부사항을 통해서 총체적 현실을 목표로 한다면, 『혼불』은 정서적 극대화를 통해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게 한다. 각 작품은 서사적 목표가 다르다. 서사적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서사적 전개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토지』가 사건과 사건을 잇는 서사 본령의 전개방식을 채택했다고 한다면, 『혼불』은 주제를 세가지 전개를 통해서 제시한다. 사건과 사건을 잇는 서사를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반복된 이미지와 청명한 언어, 역사적 예화, 관습, 제례를 통해서 똑같이 주제를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두 작품의 주제를 형성하는 『토지』의 '생명사상'이나 『혼불』의식은 둘 다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즉 존재를 존재답게 하는 힘, 생명과 영혼을 그답게 하는 정신의 정수, 핵으로 인간이 인간이고자 하는 인간다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작가의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작품에 드러나는 양상은 판이하다. 『토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게 하는 것은 폭압적인 현실로 드러난다. 그러나 『혼불』에서는 세계의 폭압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 고통과 상심, 아픔이 오히려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혹은 자신을 비우는 새로운 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실인식 방법은 인물을 형상화하는데도 다르게 나타난다. 『토지』의 윤씨 부인이나 『혼불』의 청암부인은 다같이 청상의 과부지만, 『토지』의 작가는 폭압적인

* 평택대 교수

현실로 인해 고통받는 인간적인 고뇌에 찬 윤씨부인을 부각시키려고 했는가 하면, 『혼불』의 작가는 청암부인을 통해서 청상의 운명을 인내를 통해서 극복하는 인간 승리의 모습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토지』의 작가가 자신의恨 내지 업보를 타고난 인간들의 부조리한 삶의 모습들을 서술적 의도로 잡았다고 하면, 『혼불』의 작가는 인간들의 내면적 인내를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恨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서술적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토지』와 『혼불』의 비교를 위한 전제

박경리와 최명희는 20년의 세월의 간격, 박경리는 1926년생이고 최명희는 1947년생에도 불구하고, 둘 다 여성작가라는 점과 또 다같이 대하소설 『토지』와 『혼불』을 완간 출판했다는 것으로 가끔 비교의 대상이 된다. 『토지』와 『혼불』은 또 다같이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대하소설, 작품 전개의 시기가 일본 제국주의 시대였다는 것, '혼불'이라든가, '생명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대사상이 작품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도 비교의 대상이 된다.

또한 『토지』와 『혼불』은 구한말에서 근대에 이르는 시간을 배경으로 지주집안의 가족사를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토지』의 경우, 1897년부터 1945년 해방에 이르는 시기를 배경으로 경남 하동의 만석시기 최삼판택의 혼녀인 최시희가 일본 제국주의 히에서 폐망한 기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이다. 『혼불』 역시 일제 시대¹⁾의 전복 남

1) 『혼불』의 스토리 시간과 텍스트 시간은 다르다. 서사의 시작은 강모와 효원이 혼례하는 이야기부터 시작된다. 이 시기는 1939년이나 1940년이 되는 시점이다. 청암부인이 청호저수지를 완공했을 당시에 강모의 아버지인 이기채가 14살 때였으며, 강모가 혼례를 할 시기는 강모 아버지 이기채의 나이 '사십을 넘어 서너 고개에 이르니'(1권 65쪽)라는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43세 내지 44세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일합방에서 30년 이상이 흘렀다는 것이다. 그러면 텍스트 시간은 1940년 이후의 시점이 된다. 스토리 시간은 청암부인이 청호저수지를 만들려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1909년이 된다. 그러나 이 저수지에 관

원의 오천석지기 매안이씨 가문의 멸종사를 다루고 있다. 또 두 작품 다 양반가문을 에워싸고 있는 평민들이나 하인, 천민들의 이야기를 양반가문과 대비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 또한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아무튼 독자들이나 평자들이나 이런 저런 공통성 때문에 『토지』와 『혼불』을 같이 입에 올리기를 좋아한다. 그렇지만 감히 누가 박경리의 『토지』와 최명희의 『혼불』을 비교하려고 하겠는가. 본 연구자가 감히 『토지』와 『혼불』을 비교하려고 한 것은 문학적 성취를 비교하려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두 작가가 다같이 여성작가라는 점과 똑같이 대화소설(?)을 썼지만, 두사람의 너무나 다른 작가정신과 작품의 전개방식을 비교해보자는 것이다.

최명희는 『혼불』이 완간된 이후 50만부 돌파, 단재 신채호 문학상, 호암 문학상 등 연이은 수상소식, 일간지 신문마다의 인터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일정표와 인터뷰 날짜를 조정하느라 진땀나는 나날들을 보냈어야 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단군 신화에서 웅녀가 인간이 되기 위해 100일 동안 어두운 동굴에 갇혀있었듯이 마치 자신도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온 느낌이다’라고 말했다.²⁾

한 서사도 현재 시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한 일이 해가 바뀌어 순종 임금 융희 5년, 경술(庚戌), 서력으로 1910년 여름.공사가 막바지를 향하여 치달을 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청천벽력, 천만 뜻밖에도, 팔월 스무아흐렛날, “조선은 망하였다.” 했다. 한일합방이 되었다는 것이다. (1권, p.164)

위의 인용에서 ‘작년부터’라고 시작되는 것은 이미 그 당시 일을 과거의 시점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2) ‘단군신화? 그러면 당장 구태의연하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5000년 전 사람이 되고자 꿈이 견딘 굴속의 1백일, 그것 때문에 저는 17년을 견딜 수 있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이라는 게 딱 저 자신이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완성을 의미합니다.’

정지환, 「'혼불' 작가 최명희의 판소리 사설 같은 6시간 다크토리」, 월간 『말』

『혼불』을 출판한 한길사 김언호 사장과 극작가 이금림, 한풍렬 경희대 교수의 발의로 최명희와 평소 가까이 지내는 지인과 『혼불』에 매료된 사 람들을 중심으로 정계, 재계의 거물들이 대거 참여한 ‘최명희와 『혼불』 을 사랑하는 모임’을 결성해 몇 번의 모임이 이루어졌다.³⁾ 단재상, 세종 문화상, 여성문학대상, 호암아트상 등의 수상식에도 주로 이 모임 인사 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문학계의 냉담한 반응은 여전했다. 몇몇 잡지에 서 『혼불』에 대한 작품비평을 실었을 뿐.⁴⁾

(1997.2), p.247.

3) 『조선일보』 1997년 7월 11일자에는 ‘작가 최명희와 『혼불』을 사랑하는 모임’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작가 최명희와 『혼불』을 사랑하는 모임’은 14일 발기모임을 갖고 본격 활동 체비에 들어 간다. 모임을 결성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12월, 『혼불』 10권이 한 길사에서 출간되면서 작가 최씨의 건강 악화가 알려지면서다. 그와 개인적 친 분이 두터운 드라마 작가 이금림과 한풍렬 교수 등이 17년 동안 『혼불』한 작품 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온 작가가 좌절되도록 내버려 뒀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여기저기서 『혼불』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 들이 나타나자 자연스럽게 모임 결성 논의가 되었다.

우선 이 모임 참가 인사들의 면면은 어느 문화관계 후원 모임에선 볼 수 없을 만큼 다채롭다. 그 당시 고건 국무총리, 송태호 문화 체육부장관, 유종근 전북 지사, 강원룡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 이부영(민주당), 김영환(국민회의), 김신 흥 기아그룹회장, 정희자 힐턴호텔사장, 김찬국 상지대 총장, 한만연 일조각 대 표, 이기웅 열화당 대표, 김열규 인제대 교수, 서지문 고려대 교수, 한승현 변호 사, 이금림 극작가, 탈렌트 김미숙, 김영애 등 각계의 인사들이 총망라되었다.

이 모임의 특성은 국문학자나 문학계 인사들이 극소수를 차지한다는 데 있다. 김열규 교수, 임현영 평론가, 서지문 고려대 영문과 교수, 이동하 교수 나중에 장일구 평론가와 내가 참여하게 된다. 나는 한길사에서 주재하는 『혼불』 세미 나에 주재 발표자로 참여하면서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이후 결성된 강원룡 크리스찬 아카데미원장이 회장으로 결성된 ‘『혼불』 번역 사업후원회’에 도 참여하였으나, 그 모임은 두 번 모이고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작가 최명 희와 『혼불』을 사랑하는 모임’의 대부분의 구성인원은 자연적으로 ‘번역 사업후 원회’로 흡수 통합되었는데, 최명희의 추모회 및 발인 행사를 ‘최명희와 『혼불』 을 사랑하는 모임’을 통해서 주선한 것으로 안다. 그 이후 더 이상의 행사나 모 임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혼불』에 대한 평가는 실지 양극단으로 나뉘어진다. 우리 전통 풍속이나 민속사 복원이라는 관점과 현란하고도 아름다운 서정적 문체의 관점에서 극찬을 하는 비평가들이나 작가군, 김열규, 장일구, 이동하, 최일남 등과 줄거리 위주의 서사의 맥이 막혀 진정한 서사문학으로 보기에 문체가 있다는 비평가, 김경원, 백지원 등으로 나뉘어진다. 대부분의 침묵하고 있는 비평가들이나 연구자 역시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최명희는 ‘스토리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며 사건의 배열이 스토리일 수 없다는 것이다. 최명희는 ‘소리와 향기, 빛에 관한 이미지, 자연과 우주와의 교감도 나에게 중요한 스토리’라고 말한다.⁵⁾ 『혼불』의 제5부 10권을 통해서 보자면 최명희는 스토리 자체는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건과 사건을 잇는 연속적인 이야기 중심의 서사는 거부한다. 『혼불』에서 서사는 앞에서 최명희가 이야기했듯이 자신과 다른 모든 인간, 우주, 혹은 사물과의 교감이다. 그렇다고 스토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스토리는 청암부인, 효원, 강실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전통 정서의 하나인 인내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청아한 이미지와 청명한 언어, 역사적 예화 등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우주와의 교감, 인내의 미학, 서정적 문체는 『혼불』의 골격이 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사건과 사건을 잇는 연속적인 이야기 중심의 서사가 아니라고 해서

4) 1997년 6월호 『현대문학』에서는 ‘인정이나 의리, 상업성에 이끌려 좋게 좋게만 나가는 기존의 평단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죽비소리’라는 난을 마련. 출간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가차없는 비판을 가한다. 여기에 6월호에 이문열의 『선택』과 최명희의 『혼불』이 죽비소리를 맞았다. 여기에서 5부 10권으로 출판된 『혼불』에 대해 ‘우리의 지난 역사와 풍속이 지니고 있던 풍속과 가치와 마음과 애환과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우리의 미학을 것처럼 아름답게 성실한 문장으로 그려냈다는 것은 일종의 경이였다. 그러나 1, 2부만 진정한 『혼불』일 뿐 3, 4, 5부는 사이버 ‘혼불’에 불과하다. 청송스런 문체는 매너리즘을 벗어나지 못했고 풍속과 역사의 탐구는 억지스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길을 찾지 못했고 답답하게 막혀있거나 엉뚱한 곳을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며 결국 『혼불』이 서사문학의 정도를 벗어나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5) 이문재 기자, 「작가와의 대화」, 『시사저널』(1991.1.31).

서사본령의 문학을 벗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혼불』에서 풍속과 역사의 탐구 중에 작품 전체의 유기적 연관성과는 무관한 몇몇 이야기가 끼여 들어간 것으로 본령의 서사문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서사의 맥이 끊기기도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의 정체성, 즉 '인내'나 민족적 정서와 유기적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서사의 맥이 끊긴다고 할 수 없다. 소설의 서사의 맥은 사건과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미지나 비유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서사의 맥이 이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이미지나 비유에 의해서 이야기가 진행될 경우 서사심화과정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서사심화과정의 약화는 올바른 현실인식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학의 기능이 올바른 현실인식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좀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즉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방법을 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최명희가 『혼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의 새로움이다. 체레나 관습 속에 녹아나 있는 우리의 혼을 통해서 '우리'라는 민족혼을 밝혀보자는 것이다.

『토지』에서는 서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제가 『혼불』에서는 체레나 관습, 이미지나 상징, 또 서사 이 세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 세 요소는 주제와 유기적인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토지』가 그 당대의 일상적 구체적 세부사항을 통해서 총체적 현실인식을 목적으로 한다면, 『혼불』은 정서적 극대화를 통해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게 한다. 서사적 목표가 다를 뿐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공통성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문학적 세계가 다른 『토지』와 『혼불』을 각 작품의 특징들을 통해서 그 다른 점을 밝혀 보겠다. 우선 작품의 구조적 바탕이 되는 플롯의 특징들을 작가의식과 관련해서 서사적 세계와 서정적 세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두 번째는 작품의 기저가 되는 『토지』와 『혼불』의 '생명사상'이나 '혼불'의식이 작품을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인물들을 통하여 작가의식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살펴기

로 하겠다.

2. 서사적 세계와 서정적 세계

문학적 형상화는 '이상'과의 연관 속에서 '현실'적 삶을 그리는 것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주체와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과 '자기 인식'을 드러낸다. 서사문학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전면에 놓이며 이상에 대한 자기 인식은 배경으로 밀려난다. 반면 서정장르는 자기 인식이 전면에 부각되고 인식은 뒤로 물러난다.

주체가 현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서사문학은 객관적 현실인 사회적 환경을 작품의 주요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서사문학은 당대의 객관적 현실을 필진성있게 총체적으로 드러내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여기서 필진성이라는 말은 구체적 현실을 실감있게 그려낸다는 점에서 사용된 용어이고, 총체적으로 드러내었느냐는 객관적 현실을 그려냄에 있어서, 구체적 현실 속에 내재된 당대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얼마나 잘 드러내었느냐는 것일 것이다. 구체적 현실을 필진하게 그리되, 총체적으로 그려야 한다는 것은 서사문학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낸 말이다.

대부분의 서사문학에서의 구체적 현실은 사회 역사적 현실이다. 그러나 서정소설에서는 자연적 환경이 사회적 환경을 대신한다. 서정소설은 서정시의 주요 영역인 '자연'을 끌어들이는 점에서 독특한 형식을 구성한다.⁶⁾ 자연 속에서의 인간의 경험은 사회적 경험과는 달리 주객합일을 지향한다. 일반적 서사문학에서의 근대소설은 주체가 타락한 사회와의 갈등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서정소설에서는 현실세계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어려운 암담한 상황임을 전제하고, 그 암담함을 이겨 낼 수 있는 내면적인 힘에 의미를 부여한다. 내면적 힘에 의미를 부여하는 서정적 전망은 자연과의 합일 속에서 신화적

6) 나병철, 『소설이란 무엇인가』, 『문학의 이해』(문예출판사, 1994), p.340~349.

힘을 부활시킴으로써 열악한 현실을 견뎌내는 힘을 드러낸다.

『혼불』에서 인간에게 부여된 천재(天災)나 재앙은 인력이 지극하면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회적 환경이나 역사적 환경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 청암부인이 한일합방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다, 망했다 하지만, 내가 망하지 않는 한 결코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 말은 개인 한사람 한사람의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혼불』의 중요 사건들, 청암부인의 죽음이나 강모의 결혼, 강모의 고독과 외로움, 강실이의 불행, 궁극적으로는 매안이씨의 멸망이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역사, 사회적 환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박경리의 『토지』는 일제 강점기라는 사회역사적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인물들의 갈등을 그려나가고 있다. 1, 2부에서는 주로 최참판의 흥망성쇠를 다루면서, 인간의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운명과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두 필연적 요인들이 맞부딪치는 시공간으로 그려내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운명이라는 것은 최참판네의 몰락이 최치수 아버지의 죽음, 최치수의 죽음, 윤씨부인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이미 점지된 운명적인 것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이런 연속적인 죽음으로 친일파 조준구의 등장은 필연적인 것이다. 1, 2부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훼손된 세계보다는 오히려 운명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세계가 지배하는 시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3, 4, 5부에서는 역사적 변혁기의 첨예하게 대립되는 힘들이 민족적인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런 힘들에 의해서 민중의 삶이 어떤 변화과정을 겪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3·1운동, 형평사운동, 물산장려 운동, 그리고 의열단 사건이나 계명회 사건 등, 그 당대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역사의 장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구체적 실현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간의 다양한 욕망들이 어떻게 부딪치고 좌절되어 나가는가를 보여

7) 1권, p.165.

준다. 물론 실제의 사건보다는 주로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나 사건의 전말만을 전할 뿐, 사건의 구체적 진실은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인한 민중들의 삶의 피해함과 황폐함은 그대로 드러난다. 『토지』는 일본제국주의라고 하는 구체적 현실을 작품 속에 매개해 작품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인물들의 삶이 역사적 정황에 의해서 규정되고 구속된다.

『혼불』에서 서사 시간이 분명하지 않는 것 또한 한 개인의 내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⁸⁾ 실질적으로 『혼불』에서의 서사시간은 강모의 혼례식에서부터 강실이 춘복이네 집으로 옹구네에게 납치당해 지내는 동안, 강실이 집에서는 뒤늦게야 강실의 행방불명을 알고 절망하는 시간까지이다. 끝나는 시점 역시 분명하지 않다. 마지막 장의 앞부분, 서탑거리의 조선인 풍경이나, 우리 민족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그러다가 1937년경에는 이 지역에 물경 천여 호에 가까운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 그에서 4~5년이 더 지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가호가 살지 않겠는가’⁹⁾라는 서술에서 1941, 1942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혼불』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강모와 효원의 결혼, 청암부인의 죽음, 강모의 만주로의 도피, 강모와 강실이와의 근친상간, 춘복이

8) 서사시간에 대해서는 연구가 구체적으로 된 논문은 없다. 신문 보도자료에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신문 보도 자료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보도자료에는 ‘1930년대의 매안 이씨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가문의 흥망사, 혹은 남원의 한 양반가문에서 쓰러져가는 종가를 지켜가는 종부(宗婦) 3대의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다. 『한계레신문』 1996년 12월 17일자에 1930년대 말에서 1943년 봄까지의 이야기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또 한국일보 1994년 3월 21일자에는 1900년대와 1940년대의 전라도 한 양반 가문의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서사시간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것은 작가가 한 인간의 내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사시간에 무관심한 것이기도 하고, 신문보도 자료를 출판사인 한길사에서 비전문가인 이름이 알려진 작가라든가, 유명인사의 독후감을 참조로 했기 때문에 꼼꼼이 읽지 않은 결과에 의한 것이다.

9) 10권, p.56.

강실이의 강간, 강실이의 피신, 중간 중간에 끼어드는 풍속이나 신화 이야기, 사천왕이야기, 액막이 연이야기 등등 대부분의 이야기는 일본 제국주의하의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이다. 최명희가 설정한 일본제국주의라고 하는 민족의 암울한 상황은 단지 민족적인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상징성만을 가질 뿐 구체적인 현실로서의 의미는 없다. 최명희는 그 시기가 단군신화의 웅녀의 어두운 굴에서 지내야 했던 시기이며 자신이 글쓰기를 계속하던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로 상징하고 있다. 『혼불』에서 이 시기는 미친개에게 물린 것처럼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새로운 광명의 시기를 맞이할 때로 묘사하고 있다.

위에서 언뜻 언급했지만, 신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서정소설의 형식을 취하는 『혼불』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전도된 역사'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¹⁰⁾ 『혼불』은 서정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의 합일과 신화적 상상력을 통해, 현실의 패배에 굴복하지 않는 내면성을 드러낸다.

『혼불』에서의 주인공은 1, 2부에서는 청암부인에 초점이 맞추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지 후반부에 갈수록 강실이로 옮겨가는 것은 현실의 패배를 극복하고 내면성의 승리를 알리는 서정소설의 전망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10권까지는 강실이의 암담한 시절을 그리고 있지만, 소설의 전반적인 구조가 상승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상징구조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액막이연에서 상실과 상처와 상심으로 버린 가슴, 그 비어 버린 힘으로 강하게 되어 어떤 바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실이의 내면심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강실이는 하늘에 뜬 연의 투명하게 뚫린 가슴을 올려다 보았다.

사람의 가슴도 차라리 저처럼, 애의 찌꺼기 한토막 붙어 있지 않을 만큼 말랑게 뚫리어 버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좋을 것인가.

— 『혼불』 제3부 5권, p.232

10) 나병철, 「소설이란 무엇인가」, 위의 책, p.277.

앞의 인용문은 액막이 연을 바라보는 강실이의 서정적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서정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서정적 순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혼불』에서의 대부분의 인물이 개인 운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운명적인 관점에서든 그러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치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의 길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내면화하는 인물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복잡한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는 강모와 강실이는 서정적 순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들의 모든 행동이나 언행은 서정적 순간의 내면적 반응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두 사람의 서정적 경험은 현실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을 통해서 드러난다. 『혼불』에서의 서정적 순간을 통하여 가장 정서의 극대화를 드러내는 것은, 강모가 강실이를 범하는 순간과 강실이 강모에 대한 애끓이는 그리움을 묘사한 부분이다.

3. 『토지』의 '생명사상'과 『혼불』에서의 '혼불'의식

『토지』의 '생명사상'과 『혼불』의 '혼불'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고유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영성' 혹은 '정신의 정수 혹은 핵'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다만 우리는 생명으로서 생명의 집합체이며 우주라는 개념 속에서 나는 우주일 수 있고 모든 생명도 나 자신이라는 다만 그런 느낌이 의식 속에 맴돌 뿐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¹¹⁾

'혼불'이라는 말은 근원적으로 목숨·존재·생명의 불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존재를 존재답게 하는 힘, 생명과 영혼을 그답게 하는 정신의 정수, 핵을 의미합니다. 외형은 살아있으나, 이미 '혼불'이 꺼져 나가버린 한 개인이

11) 박경리, 『인간탐구』,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현대문학사, 1995), p.23.

나 집안이나 역사. 시대. 나라도 있을수 있죠. 그러니까 나로서는 참으로 맑고 영롱한, 환한 혼불이 타오르는 세상을 꿈꾸면서 가장 쓰라리고 암울했던 상처의 시대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죠.¹²⁾

위의 인용문은 박경리의 '생명사상'이고, 아래 인용문은 최명희의 '혼불'론이다. 두 인용문을 엄밀히 따진다면, 위의 인용문에서 '나'는 곧 생명의 집합체이고, 우주이다. 마찬가지로 나 아닌 너 역시 생명의 집합체이며, 우주이다. 그러니까 생명체를 가진 모든 생명은 모두 우주이다. 너는 나이고 나는 너이다. 그러기에 생명 하나 하나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명사상이다.

최명희의 '혼불'론은 인간이면 누구나 고유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불꽃으로 인한 것이다. 『혼불』에서의 아름다운 삶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불꽃을 환하게 밝히는 삶인 것이다. '혼불'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대나 국가 역시 그 당대의 사람들이 한사람 한사람 자신의 '혼불'을 환히 밝히므로 진정한 역사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민족의 일원의 한사람 한사람이 각자 '혼불'을 환히 밝힐 때에만 번성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혼불』은 이런 민족의 '혼불'을 환히 밝히기 위하여 우리 민족의 '혼불'을 찾아 떠나는 여행인 셈이다.

박경리의 생명사상은 생명에의 연민으로부터 시작된다.

『토지』는 공간과 시간 속에 존재하는 생명, 그 한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그릇이에요. 나를 오랫동안 누르던 그들과 그것에 저항하려는 삶과 생명에의 연민-글쓰게 하는 힘은 바로 그 생명에의 연민이지요.¹³⁾

위의 인용문에서 제시한 '생명에의 연민'은 나 아닌 타자, 누구나 자기

12) 최명희, 「시대를 넘어선 고전으로 남을 대하장편소설」, 『하이틴』(1991.3).

13) 송호근, 「삶에의 연민, 恨의 美學」, 『작가세계』(1994년 가을), p.49.

나름대로의 한을 끌어안은 생명체에 대한 연민이고 존엄이다. 박경리의 초기문학, 『단층』 이전의 작품세계에서는 객관적 세계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나’ 아닌 타자에 대한 분노, 울분으로 가득차 있다. 『단층』 이전에 발표한 『표류도』에서는 주체가 객관적 현실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이나 적극적으로 현실을 끌어안지 못한다. 그러면서 『단층』 이후부터는 단순히 주체를 객관적 현실에 적응시키는 이상으로 현실을 적극적으로 껴안으려는 변모를 보인다.¹⁴⁾

이것은 박경리가 초기 작품을 쓸 당시의 현실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통해 ‘나’ 아닌 타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차츰 긍정적 인식으로 바뀌면서, 생명이 붙은 모든 것, 나름대로의 한을 가진 존재로 자기와의 동일시를 통해 타자껴안기를 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객관적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으로 변화하는데는 김지하라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들이면서 가능해진다.

나는 이웃인 인간을, 억압받고 수탈되어 고통과 모멸 속에서 인간적인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인간들을 온몸으로 뜨겁게, 실천적으로 사랑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스스로 설정한 나의 인간적인 과제인 전부이다. 이것이 나의 모든 사상적인 모색의 출발점이자 귀착지이다. 따라서 나의 사상적인 모색의 전과정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기를 바란다.¹⁵⁾

위의 글은 1975년 김지하가 수감된 상태에서 쓴 글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김지하의 민중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박경리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갈날 같은 현실에 몸담고 있는 작가로서 수감된 상태에 있는 김지하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정치적인 것을 배제한 본질적인 것만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즉 나-타

14) 이덕화, 「박경리의 심미적 존재론」, 『문학과 의식』(1997년 가을).

15) 김지하, 「양심선언」, 『김지하전집』(일본동경 한양사, 1980), p.7.

자-민중의 연민에서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연민으로 이어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타자가 바로 나라는 새로운 인식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단층』에 나타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다.

『단층』에서는 대체로 낯곳은 운명에 의해서 삶의 의지나 중심을 잃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운명도 바로 우리 존재 자체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운명까지도 껴안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준다. 이것은 그 이전까지의 박경리의 문학세계와는 판이하게 다른 문학 세계이다.

『토지』에서의 생명사상은 두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용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체에 대한 연민으로 나타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두 번째는 길상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구도의 사상이다. 이 두 가지는 박경리의 생명사상의 근간이 되는 유기체적 존재론과 관련이 있다. 박경리의 생명사상은 위의 인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집합체이며 우주’라는 개념 속에는 우주 속의 메카니즘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각기 그 개체에 대한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라는 개체가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함과 동시에 타자도 함께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상이 바로 초기의 단편소설에서는 현실에 대한 소외로 나타나던 것이 후기에 와서 현실관이 바뀌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로 우주 속의 메카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법칙이다.

개체는 저마다 소유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벌레 한 마리도 삶의 법칙에 의해 살아갑니다. 그 벌레는 삶 자체는 거대한 코끼리와 차이가 없습니다. 하늘의 별과도 차이가 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다만 미세하다 해서, 우리의 인식 밖에 있다 해서 그 벌레가 법칙 밖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총체로서의 개체이며 총체는 개체로서 이루어지고 고리사슬에 엮어진 존재일 것입니다.¹⁶⁾

16) 박경리, 「인간탐구」,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현대문학사, 1955), p.281

앞의 인용문에서 고리사슬은 각기 개체는 자기 속에 소우주를 지닐지 인정 다른 개체들과의 유기적 연관성 속에서, 삶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수 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박경리의 유기적 존재론은 『토지』에서 인물들의 유기적 연관성과 관련이 있다. 『토지』라는 소우주 속에 인물들이 각기 자신의 맡은 역할에 따라 인물들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한다. 인물의 유기적 연관성은 인물과 인물과의 유기적 연관성도 가지지만, 역사적 구체성과도 긴밀한 연관관계 속에서 움직인다. 김개주에서 김환으로 이어지는 동학군들의 팔목과 질시, 길상이를 중심으로한 서희 주위 사람들과 독립군들과의 관계맺음, 용이를 중심으로 한 농민들의 인간적인 애환과 사랑, 신여성이나 신지식군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구조, 인물들 한사람은 각기 나름대로의 한을 시대를 매개로 해서 배듭을 풀기도 하고 다시 한을 품기도 한다. 즉 객관적 현실을 닮은 『토지』라는 소우주 속에서 유기적 연관선상에 있는 각기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게 한다.

그러나 박경리의 생명사상은 삶의 법칙이나, 우주의 메카니즘 속에 놓여진 법칙을 깨닫는 데 있다. ‘비정한 균형’¹⁷⁾을 유지해야만 하는 자연이나 우주의 메카니즘을 따르지 않음은 곧 대홍수, 폭발로 이어진다. 삶의 법칙을 깨닫는 데는 철저한 고독 속에서 한의 근원을 캐는 수밖에 없다.¹⁸⁾ 길상이 지리산에서 관음상을 완성하고 구도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작가의 유기적 존재론과 생명사상이 함께 의도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길상과 신분이 다른 서희와의 결혼은 길상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기에 서희와 결혼은 했지만, 서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독립군으로 만주에 남지 않으면 안되고 다시 구도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것은 박경리의 유기적 존재론에 의해서 정해진 작품

~282.

17) 박경리, 「균형의 비정과 긴장」,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현대문학사, 1995), p.230.

18) 송호근, 앞의 책, p.58.

속의 길상이의 역할인 것이다. 서희의 엄마, 별당아씨와 함께 도망간 김환 역시 지리산에서 동학을 이끌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자기가 속한 이 세계를 끌어안은 타자 끌어안기로 남의 고통 끌어안기는 『토지』 속의 용이를 통해서 나타난다. 용이의 임이네와 월선이네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경지를 벗어난 사랑이다. 임이네는 살인자의 아내로 하루 끼니를 위해 남자들에게 몸을 맡기고 거지가 된 아낙네이다. 용이는 사랑하는 여인 월선이가 있음에도 임이네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거둔다. 또 월선네 역시 평생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둔다. 이것은 작가의 유기적 존재론에 의해 월선이가 무당의 딸로 정실부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용이의 정신적인 사랑만 먹고사는 여인으로 운명지어진 것이다.

박경리의 우주의 질서 혹은 조화에 근간을 둔 생명사상은 생명 하나 하나가 나름대로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 아닌 타자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타자의 사랑은 우주의 조화나 질서를 깨뜨리지 않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천지조화가 살게 허는 것이여. 가게 허고 오게 허는 것도 천지 조화지 뭣이겠어? 사람은 몰러, 모른단 말씨.”

“할머니가 이 고생을 하셔온 것도 아드님이 불편한 몸이 된 것도 그러면 천지조화의 탓인가요?”

“그것은 아니지라. 사램이 천지조화를 어긴 때문이여.”

“어떻게요?”

“천지조화는 공평하들 앓는 감?”

“아드님 불편한 몸도 사램이 불공평해서 그런가요?”

“공평하다든 병신이라도 다 살아가는 길이 어찌 없을 것이여? 손발 없는 배암도 묵고 살고 물 속의 개기도 묵고 사는디, 일찍이 가고 더디게 가는 거사 천지조화, 사램이 하는 일은 아닌께로.”

— 제5부 2권, p.240

“…… 천방지축을 안다는 것은 만물의 이치를 안다는 것이고, 만물의 이치를 알고 보면 나갈 때는 나가고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남보다 먼저 때를 안다는 얘기 아니겠소?”

— 제5부 2권, p.275¹⁹⁾

첫 번째 인용문은 ‘천지조화’를 어기지 않는 것이나 두 번째 인용문의 나가고 들어갈 때를 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타고난 운명에 따라 살아갈 것이지, 더 이상의 허욕을 바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장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무위(無爲)의 상태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삶이다. 무위는 인간의 존재적 특성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제도나 관습 혹은 문화, 지성 등의 질서나 규범보다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을 그대로 따르는 존재 자체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존재와 세계와의 거리가 메꾸어지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우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경리의 『토지』 3부 이후에 제시되고 있는 인물상이나 전개되는 사건은 이런 박경리의 생명사상에 의해서 제시된다. 박경리 초기의 운명적 세계관은 3부 이후의 생명사상과 더불어 인간은 각자의 정해진 삶의 몫(박경리가 이야기하는 천지조화이다)이 있는데 이 정해진 삶의 몫을 따라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 만이 우주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토지』 1, 2부의 우주의 조화를 깨뜨리는 탐욕에만 눈이 어두운 피기스런 인물들, 귀녀, 칠성, 조준구 등은 3부 이후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인물들로 채워진다.

박경리의 초기문학에서의 운명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恨)이나 생명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천지조화’는 최명희의 ‘혼불’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한(恨)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최명희나 박경리는 둘 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 난 운명이 있는데, 그 운명을 따라 살다보면 제 개인의 한(恨)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경리나 최명희는 세

19) 출판사에서 나온 전집을 텍스트로 했다.

계를 인식하는 관점은 서로 다르다. 박경리의 경우, 초기의 한 개인을 소외시키며 억압하는 폭압적인 세계에서 후기에는 서로 공존해야 하는 세계로 변화된다.

최명희의 세계에 대한 인식 역시 초기 단편에서는 초기 박경리의 문학에서 나타나는 세계와 마찬가지로 폭압적이다. 그러나 박경리의 경우, 한 개인의 삶을 억압하는 세계로 드러나는 반면 최명희의 경우 한 개인의 삶보다는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무지한 세계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드러난다. 개발, 자본 등과 관련된 근대성이라는 미명하에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을 물질화하는 세계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다. 이 비판은 인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유의 것, 우리의 과거의 소중한 것, 환경에 대한 무지막지한 인간들의 무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혼불』에 와서는 세계는 사라져 버린다. 오직 한 개인 개인의 내면성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기에 서정소설로 드러난다.

‘혼불’이 존재를 존재답게 하는 힘, 생명과 영혼을 그답게 하는 정신의 정수, 핵을 의미한다면, 결국 인간이 인간이고자 하는 인간다움, 박경리의 인간의 존엄성과 다를 바 없다. 박경리는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개체 하나하나의 자기 충족감을 가지고 있는 우주와 같아서 그것을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소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박경리의 세계인식은 세계가 폭압적이기 때문에 생명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지켜나간다는 것조차 어렵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반면 최명희는 인간이 각기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신이 ‘혼불’이라면, 한 인간에 있어서나, 국가에 있어서나, 민족에 있어서도 그 ‘혼불’이 활활 불타오를 때에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박경리에게 한 인간의 존엄성을 파멸시키는 세계의 폭력은 최명희에게는 세계를 통해서 당하게 되는 고통과 상심, 아픔이 오히려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혹은 자신을 비우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중략…) 제 인생의 맥 속에서 참다운 혈을 못찾은 사람은 헛되이 한평생 헤맬 것이요, 엉뚱한 곳에 집착한 사람은 헛살았다 할 것이다.

— 제2부 4권, p.16

(…중략…) 경치고, 정신이고, 인생이고, 경혈의 묘처(妙處)는 오직 한 군데 아니면 많아야 두 군데에 불과 한 것인즉, 이 자리를 소중하게 아끼고 잘 알아서 제 생애를 다한 집을 세워야 하리라. 그래야만, 생애는 이 집을 바라보고, 집은 생애를 돌아보는 묘미가 있지 않겠느냐.

— 제2부 4권, p.18

위의 인용문은 청암부인이 아들 이기채의 나이 21세에 정자를 짓고, 정자에 빗대어 인간의 정신적 혈(穴)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생명의 불꽃인 ‘혼불’을 활활 불타오르게 하듯이 인간이 제 생애를 다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신이 경혈의 묘처를 잘 찾아서 그것을 소중하게 아끼고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혈의 묘처를 잘 찾아서 ‘혼불’을 활활 불태운 사람이 청암부인이고, 또 경혈의 묘처를 찾기도 전에 운명의 덧으로 자신의 존재를 건뎌내야 했던 인월택이 있다. 그러나 『혼불』에서는 ‘혼불’을 훤히 불태우는 일보다 오히려 경혈이 막혀 자신의 존재의 무게조차 견디기 힘든 인월택을 비롯한 강실이, 강모의 이야기, 백제의 역사의 뒀안길에서 ‘혼불’을 불태우지 못하는 전주를 위시한 전라도 이야기, 일본제국주의의 억압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우리 민족 이야기, 또 민족의 ‘혼불’을 캐기 위하여 삶의 뒀안길에서 자신의 경혈을 갈고 닦는 최명희의 이야기인 것이다.

청암부인과 인월택은 다같이 결혼하자마자 청상과부가 된 여인들임에도, 청암부인은 쓰러져가는 매안이씨 집안을 일으켜 세운 대장부 같은 여인이고, 인월택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간 여인이다. 청암부인은 그 당시 여자로서 청호라는 저수지를 만드는 대사업 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자 아닌 대장부라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이루어내었다. 이는 『혼불』에서 청암부인은 자신의 경혈의 묘처를 찾아내어

‘혼불’을 활활 불사르는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암부인의 ‘혼불’은 손자 며느리 효원에게 그대로 빨아들여졌음에도, ‘혼불’의 불타오름은 청암부인의 죽음과 함께 매안이씨 집안에도, 우리 민족의 앞날에도, 거명굴의 앞날에도 다시 타오르지 않는다. 민족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였기 때문에 민족은 물론, 한 집안, 개인까지도 고통과 상실로 점철되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혼불』에서의 매안 이씨의 몰락이나 강모, 강실이의 고통과 상실은 역사적인 정황과는 무관한 것이다.

단지 언제, 어느때, 어느날 불타오름을 위해 인내하는 인간군상들, 강모, 효원, 강실, 춘복, 강태, 백단이, 옹구네 등, 암울한 시대의 민족 한사람 한사람이 존재할 뿐이다. 민족의 ‘혼불’의 흔적을 찾아 신화, 역사, 제례풍습, 생활관습 등 다양한 궤적을 더듬어 올라가는 것이다. 민족의 정신으로 드러나는 ‘혼불’의 흔적은 양반에게는 핏줄의 바탕을 존중하고, 귀품을 잃지 않고 목숨과 같이 여기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는 인간의 고독이나 인간적인 상실을 풀길 없이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강모나 강실이를 통해서 잘 나타난다. ‘덧석말이 몰매’로 드러나는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의 풍습과 대조되는 상민들의 풍습은 체면보다는 실리나 인간적인 욕망이 앞선 한의 텅어리인 울분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춘복이의 양심과 세습 무당인 백단이의 투장으로 나타난다.

민족적 서사인 ‘혼불’의 불타오름은 상실과 아픔을 딛는 인내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양반의 정신을 세우고자 하는 매안이씨네 집안의 몰락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는 계기로 서 춘복이의 강간으로 인한 강실이의 임신은 매안 이씨와 거명굴과의 화해를 예고하고 있다. 양반도 상민도 신분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새로운 인간이 ‘혼불’의 불씨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수천 년으로 이어지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간의 갈등도 화해의 장으로 이끌 것이다. 이것은 춘복이의 말대로 ‘피가 섞이고 살이 섞여’ 양반은 상민을, 상민은 양반을, 타자로서가 아닌 자신으로서 받아들여질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4. 『토지』와 『혼불』의 인물 비교

『토지』의 1, 2부의 인물구조는 최참판댁을 중심으로 하는 양반, 최참판댁에서 하인신분으로서의 사람들, 또 양반가문인 최참판댁의 땅을 부쳐먹는 소작인들로 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3부 이후에 가서는 일본제국주의라는 정치적인 억압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꿈꾸는 집단과 일본제국주의에 영합하는 집단으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두 집단으로 나누어지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양반과 상민이라는 구도가 희석화되면서 자본주의 구도에 따라 신분이 재편성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인물로 구성된다. 그러나 『혼불』에서는 1부에서 5부까지 매안이씨를 중심으로 하는 양반가문, 매안이씨 집안에서 하인으로 있는 사람들, 거명굴을 중심으로 한 상민들로 세 집단의 사람들이 주요집단으로 이 인물구조는 작품 마지막까지 이어진다. 『토지』의 1, 2부의 작품구조를 지탱해주는 인물들이 『혼불』에서는 그대로 5부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우선 『토지』 1, 2부와 『혼불』 전체의 인물구조를 대략 살펴보고, 각 작품의 초점인물인 『토지』의 최참판댁의 윤씨부인과 서희, 『혼불』의 매안이씨 집안의 청암부인과 강실이를 비교함으로써 두 작품간의 인물들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토지』의 최참판댁이나 『혼불』의 매안이씨 집안의 인물들은 양반이라고 하는 뚜렷한 특징, ‘침묵의 미덕’과 ‘인내의 미덕’을 그대로 보여준다. 최참판댁의 여러 사건들, 일테면 윤씨부인의 강간사건, 별당아씨와 구천이의 연애나 도망사건, 최치수의 죽음 등 최참판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큰사건들이 의혹에 묻힌 채, 소작인들의 특히 여자들의 수다 속에서만 엿들을 수 있는 사건들이다. 이것은 침묵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양반의 행동양식의 하나로 유교문화에서 오는 것이다. 즉 침묵을 통해서 인간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권위주의 문화의 한 행동양식이다. 말이 많으면 인간은 그만큼 약점을 보이게 되고, 약점을 보이게 되면 그만큼 권위

가 상실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괄호 속에 넣어 애매모호하게 신비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더 부각시키거나 다른 인간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토지』에서는 양반 인물들의 침묵의 미덕을 내세운다고 하면, 『혼불』에서는 청암부인이나 인월댁, 효원, 강실 등의 인물들을 통해서 ‘인내의 미덕’을 보여준다. 청암부인이나 인월댁, 효원은 청상과부나 마찬가지로 인신세로 인내의 철학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삶의 조건 속에 있는 인물들이다. 그중 가장 정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강실이라고 할 수 있다. 강실이 사촌오빠와의 근친상간은 이미 인간으로서 즉 양반으로서 살아갈 존재 기반을 박탈 당할 위기에 있으며 더구나 천민인 춘복이의 아이를 잉태한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자신의 전 존재를 집어던지는 인내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것이다. 삶을 인내하는 것 또한 양반의 행동양식의 하나이다. 이것은 양반의 존재기반을 확고히하고 가부장제를 종속시키기 위해 가문을 확고히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반면 양반의 반대편에 서 있는 『토지』의 하인들이나 소작인들, 『혼불』의 하인들이나 거명굴 혹은 고리배미의 천민들의 행동 양상은 다르다. 『토지』의 최참판댁의 하인들이나 소작인들은 몇몇 악의적인 인물, 김평산이나 칠성, 귀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최참판댁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호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산다. 최참판댁 윤씨부인과 월선이 어머니, 하인 신분인 김서방인 바우할아범, 봉순네, 용이 등 많은 하인들이나 소작인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여준다. 반면 『혼불』의 하인들이나 고리배미, 거명굴 사람들은 철저한 신분 자각을 통해서 한과 울분에 쌓여있는 사람들이다. 이는 『토지』의 인물들이 최참판댁의 땅을 부치는 소작인, 즉 농민들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본성인 유순하면서 보수적인 성향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혼불』의 인물들 즉 거명굴이나 고리배미 사람들은 천민들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신분적 울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또 이에 대해서는 최명희의 『혼불』의 집필시기가 광주

민주사태 직후라는 시대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이 시대적 분위기가 가미되었을 것이라는 생각 또한 가능하리라 본다. 거명굴 사람들과 고리배미 사람들의 한과 울분은 주로 첨예화된 신분적인 대립에서 오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생래적인 것으로 그려진다. 옹이네나 춘복의 울분을 쇠여올네의 덕석말이 매맞이로 매개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신분적인 울분을 토하기에는 사건 자체의 갈등이 뚜렷하지 않다. 옹구네의 주도 면밀한 음모로 시작되는 춘복이와 옹구네의 강실이 강간에서 강탈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춘복이나 옹구네가 생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울분에 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습무당 백단이가 시아비 홍술이의 부탁에 의해서 남편 만동기와 청암부인의 묘자리에 홍술이의 뼈다귀를 묻는 투장사건 역시 천민이라는 신분에 대한 한을 풀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토지』에서의 최참판네와 『혼불』에서의 매안이씨의 인물들을 비교해 보자. 최참판네와 매안이씨는 다같이 양반가문으로 몇천석의 땅을 보유한 지주들이다. 두 집안은 다함께 몰락의 길을 걷는데 최참판네는 운명이라는 닢에 의해 몰락이 예정된 길이다. 중국에는 일본제국주의라고 하는 역사적 정황이 매개되어 더욱더 몰락의 길을 가속화시킨다. 이에 비해 매안이씨의 몰락은 청암부인의 죽음과 함께, 매안이씨의 집안을 책임져야 할 강모가 **장손으로서**의 억압과 책임에서 벗어나고자하는 고뇌와 개인적인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방황**으로 인해서 파행되는 행동으로 인한 것이다.

최참판댁의 최치수의 죽음, 별당아씨와 구천이의 도망, 열병으로 인한 윤씨부인과 충직한 머슴들의 죽음, 친일파 조준구의 등장 등, 일련의 사태는 5~6세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서희의 운명의 바퀴를 돌려 놓는 일련의 사태인 것이다. 결국 서희의 일파는 조준구가 끌어들이는 일본제국주의 힘의 세도에 밀려 간도로 떠날 수 밖에 없었다. 간도에서의 자본주의 물결을 탄 서희의 영악한 시류의 영합은 다시 상승 기류를 타고 최참판 집안을 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서희의 영악한 시류의 영합은 그동안

자신의 분신과 같았던 종의 신분인 길상이를 받아들이고 결혼으로 이어진다.

반면 매안씨와 청암부인의 죽음은 자신의 '혼불'이 다한 축복받은 죽음이었다고, 강모와 효원의 결혼의 파국은 강모의 개인적인 취향, 혹은 남성 우월주의에 의한 선입감, 여자는 여성스럽게 자그마해야 한다는 의식에 의해서 효원의 덩치킴에 지레 겁을 먹고, 어릴 적 소꿉동무 강실이를 새로 사모함으로써 생긴 것이다. 강모의 이러한 의식은 강실이와의 상피붙는 것으로 불행을 자초하게 되고 강모는 만주어로 유랑의 길을 걷게 된다. 강실이 역시 강모에 대한 상사병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다 춘복이에게 다시 강간당하는 참혹한 운명에 빠져든다.

『토지』의 최참판댁의 몰락과 흥망은 일본 제국주의하라는 역사적,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서 매개되어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서술된다. 1, 2부의 운명에 의해 지배되는 인물들의 집착은 3, 4, 5부에 외서는 역사적 변화에 따른 우리 민족의 삶으로 서술 의도가 바뀌면서 차츰 인과관계에 의해서 인물들의 관계가 형성된다. 1, 2부에 서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서회는 최씨 가문을 일으켜야 한다는 가문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길상이와 결혼함으로써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매개항을 길상이를 통해서 확보하게 된다.

반면 『혼불』의 청암부인은 대장부적인 면모가 매안 씨의 가문을 세운다는 의미 이상을 넘지 못하고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대전제 앞에 단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깨어있는 한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내면의 강고함을 통한 인내의 미덕을 부르짖는다. 청암부인을 잇는 효원이나 강모는 효원이 매안씨네가 살고 있는 원땀마을을 떠나지 못한 아녀자라는데서, 강모는 매안씨의 종손자라는 심리적 억압감에서 벗어나 한 개인으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고 싶은 욕망에서 파행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데서 일본제국주의 상황하에서의 역사적인 상황을 매개할 인물이 되지 못한다. 당대의 역사적 상황을 매개할 역사선생인 심진학을 따라다니는 강모의 사촌인 강태나 조카뻘 되는 강호를 설정하고 있지만,

그 당대의 역사를 해석하고 설명할 뿐 당대 역사적 상황을 매개하지 못한다. 단지 작가의 역사관을 제시할 뿐이다.

작가는 사회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그 당대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보다는, 역사는 나를 있게 한 근본이기 때문에 지나간 역사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내가 과연 누구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존귀한 존재가 된단 말이다.

역사도 마찬가지야.

이미 지나간 시대. 죽은 자들의 넋두리라고 휴지처럼 구겨서 쓸어버리면 시간의 배설물, 한 더미 두엄만도 못한 것이 역사고, 그것이 몇천 년 혹은 몇백 년 전의 이야기일지라도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근본이요, 과정이라고 믿는다면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역사지.

그러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야.

오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오늘의 '나'다.

— 제2부 2권, p.43

위의 인용문은 강태의 입을 통해 작가의 역사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글이다. 작가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이 그 민족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보다는 '나'를 있게 한 근본이 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역사로 본다. 어떠한 역사적 상황 아래에서든, 그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개인의 삶은 빛나는 영광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인내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작가의 이러한 역사관은 일본제국주의라는 역사적 상황은 상징으로서의 의미만을 지닐 뿐 그 당대의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는 상황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들은 역사적인 상황을 매개할 인물보다는 상실과 고통을 통해 내면적 인내를 요할 수 있는 인물이 서술의 초점인물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의 초점은 강모와 강실에게 맞춰져 있다.

청암부인에서 효원으로 이어지는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가문

중심주의 인물들과, 청암부인의 재산이 상민들의 억압과 착취에 의한 증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관념적 사회주의자인 강태와 강호, 가문의 심리적 중압으로 벗어나고 싶은 심리적 갈등에서 자유주의자의 길을 걷는 강모, 양반이라는 그들에서 끊임없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거명굴 사람들, 특히 춘복이, 옹구네, 백단이 부부 등은 사건 발단의 계기가 개인적 동기에 의해서 유발된다는 것 또한 『혼불』이 역사적 소설로 읽히는 것을 거부한다.

윤씨부인과 청암부인은 청상에 과부가 된 것은 똑같다. 윤씨부인은 두 아들, 최치수와 김개주, 김개주의 아들 환이와의 사이에 얽힌 복잡한 인연으로, 두 아들들에게는 엄격하면서도 냉정한 모습으로 아랫 하인들에게나 소작인들에게는 대지주의 후예답게 극히 인간적인 후덕한 모습으로 양면적인 모습을 보인다. 윤씨부인이 절에서 100일 기도를 드리는 동안 동학란의 주모자 김개주의 겁탈로 낳은 환이의 존재는 윤씨부인에게 자신의 삶의 존재기반을 부정하게 했고, 또한 아들을 부정함으로써 또 나머지 한 아들에 대해서도 사랑을 줄 수 없는 업보(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다. 윤씨부인의 업보는 결국 최참판택을 몰락시키는 일차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최치수는 어머니 윤씨부인 대한 반발로 결국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되고, 이는 서희의 엄마, 별당 아씨가 남편 최치수를 두고 윤씨부인의 또 다른 아들 구천이와 바람이나 도망을 가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윤씨부인의 대지주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애환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애환을 통하여 생생한 인간적인 모습을 제시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혼불』에서의 청암부인은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대장부적인 면모를 보이는 여장부다.

“종부는 하늘이 내리시는가, 저렇도록 큰일을 아낙의 몸으로 일으키다니, 우리 같은 사람은 몇 세상을 다시 나도 못할 일을.”

“참 놀라운 일이지, 없는 사람은 서로 콩 한쪽을 나누어 먹지만, 부자는 땀

전 한 푼에 사람을 죽인다는데, 당신 재산을 다 내놓고 저렇게 저수지를 만들다니, 본받을 일이네.”

“이제는 살것구면, 한시름은 덜었지.”

하고 칭송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 제1부 1권, pp.161~162

위의 인용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매안 이씨 집안은 청암부인이 신행을 온 이후에서 청암부인이 세상을 하직하기까지가 절정기였다. 청암부인이 들어오기 전, 이씨문중의 중심이었던 청암부인의 시아버지, 그 부인들이었던 첫째 부인 반남 박씨, 둘째 부인 청주 한씨를 비명에 잡아가고, 셋째 부인인 남양 홍씨 부인을 달아나게 하여 결국 시아버지의 실심으로 집안을 거들 형편이 아니었으며 자손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겨우 얻은 초립동이 청암부인의 신랑 준의를 열 여섯 나이에 비명횡사로 청암부인을 청상으로 남겨두었다. 청암부인이 결혼한 지 일년도 채 안되 남편 준의를 잃고 신행을 왔을 당시에는, 고가(古家)의 지붕과 목은 흙냄새를 풍기는 행랑채 한채만 겨우 남아 있었다. 청암부인은 하나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일궈 나가기 시작했다. 청암부인은 그 후 매안이씨가 사는 원뚝마을뿐만 아니라 거명굴까지 다 마실 수 있는 들레가 사방 오리가 되는 청호(靑湖)라는 저수지를 만들었으며, 농사만 해도 오천석을 바라보는 대농가의 지주가 되어 있었다. 청암부인은 자신이 청상이 된 한을 쓰러져가는 매안이씨 집안을 일으켜 세움으로 자신의 한을 갚으려 했다고 할 수 있다.

『토지』에서의 윤씨부인을 잇는 인물은 서희가 되며, 초점인물 또한 서희로 두 인물이 일치됨에 비해, 『혼불』에서의 청암부인을 잇는 인물은 강모의 부인, 효원이며, 작품의 초점인물은 강모의 사촌누이 강실이가 된다. 연구자들 중에는 『혼불』을 매안이씨 가문을 일으키고자 하는 청암부인을 중심으로 한 율촌택, 효원에 이르는 3대 중부들의 이야기²⁰⁾로 제

20) 대부분의 한길사가 제공한 신문, 잡지의 『혼불』의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시하고 있으나, 작가가 해방직후와 6·25 이후까지 근대사를 다루려다 미완의 상태에서 작고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인 작가의 의도는 작품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다. 작가가 의도한 작품의 최종적인 서술방향은 무엇이었던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품 속에 있는 올바른 서술방향을 읽어내어야만 하는 것이다. 즉 5부 10권 안에 있는 작품의 서술방향을 충실하게 따라 읽어내어야만 하는 것이다.

최명희는 『혼불』 5부 10권에서 분명한 서술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혼불』의 서술의도는 위에서 서술했지만 상징과 이미지, 역사적 인물, 서사 세가지 통로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제시한다. 즉 『혼불』에서의 가장 대표적 이미지로 사천왕 이야기와 연만들이가 상징적으로 제시되는데 이것은 모든 서술의 방향이 강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역사적 인물, 단군부터 유자광, 선화공주 이야기 등 무수한 역사적 예화들이 강실외와 춘복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또 서술의 갈등이 모두 집안간의 갈등, 효원과 강실이의 갈등, 강모와 효원의 갈등, 옹구네의 갈등, 춘복이의 갈등 대부분의 갈등의 중심에 강실이 놓여 있다. 그렇다면 초점인물은 강실이 되며 서술방향도 강실외와 관련된 내용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매안씨를 중심으로 한 3대의 종부 이야기는 일부의 진실은 될 지언정, 전체의 서술방향은 아닌 것이다. 여기에서는 청암부인에 이어서 강실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전체 서술방향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강실외를 분석할 것이다.

우선 『토지』의 서회부터 분석해보자. 1, 2부에서의 서술의도는 주로 3, 4, 5부에서 서회의 집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몰락하는 최참판댁을 일으키는 대찬 여인으로 제시하기 위한 전조로서 주로 서회의 고집, 집념을 보여준다. 조준구 일가와외의 관계에서, 또 하인과의 관계에서도 어

있다. 연구자 중, 김열규는 『혼불』의 삼대기'로 제시하고 전북대 교수인 왕철 역시 주간지의 최명희 인터뷰에서 『혼불』은 청암부인, 율촌댁, 그리고 효원으로 이어지는 삼대의 이야기입니다.'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나 저널에서 공인된 이야기처럼 제시하고 있다.

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으로서의 손색없는 당찬면을 보여준다. 3, 4부에 가서는 어릴 때의 당차고 집념의 여인인 서희가 최참판의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집념 하나로 일본제국주의라고 하는 현실과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는 모습을 제시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아비를 염려하고 자식들을 염려하는 평범한 아낙으로 집안의 상징적인 대모로서의 역할만을 보여준다.

『혼불』에서의 강실이는 『토지』의 서희가 자신의 고집대로 현실을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인물이라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자들의 강간에 대책없이 당하는 극히 수동적인 인물이다. 제1권부터 10권까지 열마디 말도 채 하지 않는 침묵과 인내로 일관하는 인물이다. 대부분의 서술 의도가 하인들의 입을 통해 혹은 옹구네의 수다로 강실이의 근황이 제시된다. 또 강모나 자신 강실이의 의식을 통해서 제시될 뿐이다. 또 위에서 얘기한대로 역사적 예화를 통해서,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반복해서 다시 강실이의 존재를 제시하고 있다.

강실이와 사촌 강모와의 상사의 정은 주로 강모의 시점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가까워졌으며, 왜 효원과의 혼인날 밤 강실이를 그토록 그리워 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강모가 먼 친척되는 상사병으로 죽은 강수의冥婚식 곳을 하던 날 강실이를 범했을 때, 강실은 자신의 심리적 혼란을 겪지 않은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강모에 대한 상사의 정으로 상사병에 걸리게 된다. 강모에 대한 그리움만이 절실하게 서정적 문체로 절절하게 그려질 뿐, 강모가 사촌오빠이고 이미 결혼한 지아비임에도 심리적 동요, 갈등은 그려지지 않는다. 상사병으로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서 보름날, 달의 정기를 흡입하기 위해 대문간에 기대있다가 시시각각 강실이에게 자신의 자식을 낳아주기를 소원하던 춘복이의 먹이가 된다. 춘복이의 강간에도 강실은 큰 심리적 동요를 보여주지 않는다. 물론 강모와의 근친상간으로 집안에서 덕석말이 물매를 맞고 내쫓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목숨과 다름없는 강실이였지만, 자신의 정조의 유린은 자신의 생명의 유린과 맞먹는 엄청난

사건임을 강실이는 전혀 인식 못하고 있다. 단지 인내만 할 뿐이다. 마치 의식의 마비를 가져 온 식물 인간처럼 엄청난 유린을 겪고만 있을 뿐이다. 작가는 강실이의 상실과 상실을 액막이 연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 애 녹은 자리의 쓰라린 공동(空洞). 이 상실과 상처와 상심이 버린 가슴은 오히려, 해 같고 달 같은 꼭지로 물들어서, 한숨과 눈물의 풀로 한 생애의 이마에 곱게 붙여질 것인가.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비어 버린 것의 힘으로 가벼이 되며, 또 비어 버린 것의 힘으로 강하게 되어, 바람이 불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것인가.

— 제3부 5권

위의 인용문은 강실이 수많은 상실과 상실을 통해 비워버린 가슴, 비어버린 힘으로 가벼이 되어 훨훨 하늘을 나는 것처럼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상승구조의 작품임을 시사하는 글이다. 작가는 강실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늪으로 던져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부서버린 다음 새로운 제2의 강실을 탄생시키고자 하는 서술의도를 위해서 강실을 죽음의 지경에 몰아 넣는 것이다. 인간의 강인한 인내의 힘을 강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토지』의 서회가 현실의 변화과정에 따라 인물이 변화함에 비해 위에서 분석한대로 『혼불』의 강실은 행동은 현실적인 매개 과정 없이 개인적인 사적인 계기에 의해서 진행되고 유발됨을 보여준다. 이런 차이는 대부분의 인물에서도 마찬가지다.

윤씨부인이나 청암부인은 다같이 청상의 과부지만, 『토지』의 작가는 폭압적인 현실로 인해 고통받는 윤씨부인의 인간적인 고뇌에 찬 모습을 부각시키려고 했는가 하면, 『혼불』의 작가는 청암부인을 통해서 청상의 운명을 인내를 통해서 극복하는 인간 승리의 모습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보인다. 『토지』의 작가가 자신의恨 내지 업보를 타고 난 인간들의 부

조리한 삶의 모습들을 서술적 의도로 잡았다고 하면, 『혼불』의 작가는 인간들의 내면적 인내를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타고난 恨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서술적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인물구조의 차이는 『토지』와 『혼불』의 인물의 전반적인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5. 결론

주체가 현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드러내는 서사문학은 당대의 객관적 현실을 찰진성 있게 총체적으로 드러내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구체적 현실을 찰진하게 그리되, 총체적으로 그려야 한다는 것은 서사문학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 그에 반해 서정소설에서는 구체적 현실은 하나의 배경으로서만 의미를 가진다. 즉 서정소설에서는 현실세계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어려운 암담한 상황임을 전제하고, 그 암담함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적인 힘에 의미를 부여한다. 내면적 힘에 의미를 부여하는 서정적 전망은 자연과의 합일 속에서 신화적 힘을 부활시킴으로써 열악한 힘을 견뎌내는 힘을 드러낸다.

『토지』가 당대의 일상적 구체적 세부사항을 통해서 총체적 현실을 목표로 한다면, 『혼불』은 정서적 극대화를 통해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게 한다. 각 작품의 서사적 목표가 다르다. 서사적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서사적 전개 또한 다를 수 밖에 없다. 『토지』가 사건과 사건을 잇는 서사 본령의 전개방식을 채택했다고 한다면, 『혼불』은 주제를 세가지 전개를 통해서 제시한다. 사건과 사건을 잇는 서사를 통해서도 주제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반복된 이미지와 청명한 언어, 역사적 예화, 관습, 제례를 통해서 똑같이 주제를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두 작품의 주제를 형성하는 『토지』의 '생명사상'이나 '혼불'의식은 둘 다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즉 존재를 존재답게 하는 힘, 생명과 영혼을 그답게 하는 정신의 정수, 핵으로 인간이 인간이고자하는

인간다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작가의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작품에 드러나는 양상은 판이하다. 『토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게 하는 것은 폭압적인 현실로 드러난다. 그러나 『혼불』에서는 세계의 폭압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 고통과 상심, 아픔이 오히려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혹은 자신을 비우는 새로운 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실인식 방법은 인물을 형상화하는데도 다르게 나타난다. 『토지』의 윤씨부인이나 『혼불』의 청암부인은 다같이 청상의 과부지만, 『토지』의 작가는 폭압적인 현실로 인해 고통받는 인간적인 고뇌에 찬 윤씨부인을 부각시키려고 했는가 하면, 『혼불』의 작가는 청암부인을 통해서 청상의 운명을 인내를 통해서 극복하는 인간 승리의 모습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보인다. 『토지』의 작가가 자신의恨 내지 업보를 타고 난 인간들의 부조리한 삶의 모습들을 서술적 의도로 잡았다고 하면, 『혼불』의 작가는 인간들의 내면적 인내를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恨을 어떻게 극복하는가하는 서술적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토지』와 『혼불』은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서로 서사적 목표가 다르고,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작품을 전개하는 방식, 인물의 형상화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토지』가 서사본령의 문학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 현실인식에는 『혼불』보다 훨씬 우수하다. 그러나 문학작품이 모두 현실의 총체적 인식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개성이 각기 다른 인간의 각자의 성품을 제대로 읽을 때에만 그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듯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 또한 다양화 시대의 연구자의 태도일 것이다. 현란한 서정적 문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끈질긴 집념으로, 인내의 미학을 집대성한 『혼불』은 우리 민족 삶의 지표로서 새로운 의미를 가질 것이다.